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홍경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 연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뉴스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도하는지 내용분석 했다. 이 연구는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뉴스는 다른 신문사, 방송사는 물론 다수의 인터넷 매체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합뉴스>가 보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사들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사는 주로 해설성 기사로 작성되었으며, 비판적인 논조보다는 중립적 논조가 더 많았다. 관련 정보제시방법이 맥락중심적인 행태를 보였으나 단순히 숫자를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숫자정보중심 비중도 높았다. 백신 접종 보도지역은 주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동서 클러스터 프로젝트(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DSU-20220003).

** wansoo1960@gmail.com

*** yeongsol@hanmail.net

**** hongks@ajou.ac.kr, 교신저자

로 미국과 유럽이었으나, 감염현황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보도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기 보다는 받아쓰기와 같은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았다. 의제 간에 취재방법에 차이를 보였는데, 백신 정치학의 경우는 직접 취재에 의해 작성되는 편이었고, 백신 경제학이나 보건역학은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연합뉴스>의 보도 의제 가운데 가장 많은 보건역학 의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백신 접종 추가정책과 백신 접종 시행착오 의제는 부정적 논조로, 백신 접종 부작용과 백신 접종 대상에 대한 의제는 중립적 논조로 보도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독려 의제는 맥락정보중심으로 보도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이나 백신 접종상황에 대한 의제는 숫자정보중심으로 구성되는 편이었다. 백신 접종 독려 의제는 직접 취재 비율이 높았으나, 백신 접종 부작용이나 감염자 현황 의제는 보도자료 보도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제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도하는지를 헬스 저널리즘 규범 측면에서 논의했다.

주제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연합뉴스>, 헬스 저널리즘

1. 서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는 2021년 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한국 사회의 뉴스 공론장을 지배해 오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꼽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들은 다른 어떤 뉴스 의제보다 백신 접종 의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서도 다른 뉴스 매체의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합뉴스>는 백신 접종뉴스를 가장 많이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하나로 평가된다(이완수·홍경수·정영희, 2022)¹⁾.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보도하는 코로나19 백신

1)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규모인 600여명의 기자가 글, 사진, 그래픽, 영상 등 하루 3천여 건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국내 언론사 210여 곳, 포털 등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기업 280여 곳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79개국 94개에 이르는 외국의 주요 뉴스통신사와 협정을

접종 관련 뉴스는 다른 신문사, 방송사는 물론 다수의 인터넷 매체의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팬데믹 예방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Chen & Xu, 2021).

사람들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보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노출되어 왔다(이완수, 2021). 그 가운데서도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정보는 더 적극적으로 소비되었다(이완수 등, 2022). 이런 점에서 <연합뉴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미디어 의제설정의 일차적 주체자이자, 대중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손영준, 2010). 하지만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뉴스 의제와 내용을 구성해 보도해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국가 재정 후원을 받는 언론 매체로서의 정체성, 뉴스 도매상으로서 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 뉴스 소매상으로서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그리고 어떤 의제로 내용을 구성해 보도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매체의 영향력이 크면서도 저널리즘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뉴스통신사의 보도 연구는 의제 형성(agenda building) 이론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보도 규범을 제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분석

맺어 국내 소식을 해외로 전파하는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는 2016년 1월에 국내 언론사 중 연합뉴스 계열의 영향력을 3위로 규정했다. 이는 KBS 계열(17.5%), 조선일보 계열(11.1%)에 뒤이은 수준이다.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인터넷뉴스 부문에서는 점유율이 18.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강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뉴스 보도 특성이 어떠한지, 보도과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보도과정에 어떤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도의 규범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합뉴스>의 보도 형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여점도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된 2021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연합뉴스>가 보도한 백신 접종에 대한 의제의 구성 형식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합뉴스>가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팬데믹 예방을 위한 뉴스통신사의 보도 관행을 살펴보고, 아울러 백신 접종 보도 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제안과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미디어의 의제 보도 형식과 구성 체계

뉴스는 형식적 차원에서 기사유형, 기사관점, 정보제시방법, 보도 시공간, 보도 의제, 그리고 정보 제공자로 나뉜다. 기사유형은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언론은 대개 6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중요 순서대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포함해 사실의 배경, 전개 상황, 그리고 전망을 기술하는 해설뉴스, 그리고 사실을 주장과 의견을 담아 비평하는 논평기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사는 대체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하 원칙의 요소로

구성된다. 기사관점은 뉴스를 전달할 때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가의 문제로 뉴스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뉴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뉴스의 논조(tone)나 프레임(frame)이다(McCombs, Shaw, & Weaver, 1997). 우리는 기사의 관점을 통해 언론이 특정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파악한다. 뉴스에서 기사관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련 정보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 사실을 열거하는 식으로 정보 전달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정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맥락화하는지에 따라 뉴스의 품질이 결정된다(김경모 등, 2021). 과거와는 달리 뉴스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뉴스 생태계에서 단순한 사실 전달 위주의 기사, 사실만 있고 맥락이 없는 기사, 경직되고 정형화된 기사 스타일은 모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좋은 품질의 뉴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김경모 등, 2018). 한국 언론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제를 보도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나 통계 데이터만으로 기사를 작성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이완수, 2021). 숫자 정보는 외견상 타당하고 확실해 보이지만(이완수, 2021), 맥락이 없는 숫자나 통계만으로는 ‘현실의 그림(picture of reality)’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Cohn & Cope, 2012). 숫자의 나열과 통계 데이터가 코로나의 실체를 보여주거나 위험과 예방을 위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이완수, 2021).

뉴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보도 의제이다. 보도 의제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문제를 현저하게 강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Fox, 2021; Perloff, 2022). 우리가 매일 읽고, 보는 뉴스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평가해 강조한 사회적 의제로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뉴스의 보도 형식과 내용은 늘 같은 패턴으로 조직되기 보다는 기사유형, 취재방법, 보도 의제에 따라 다르게 재구성된다. 예컨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국가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최영재, 2016; Chen & Xu, 2021). 특히 국내 뉴스통신사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뉴스를 편향적으로 선택해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편중 보도함으로써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들의 정보가 소외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다뤄지기도 한다(이완수, 2010).

미디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들(objects)을 강조해 보여줄 뿐 아니라, 그 무엇에 내포된 속성들(attributes)을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McCombs, Shaw, & Weaver, 1997). 미디어가 구성한 현실은 결국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와 그 의제의 속성을 선택, 강조, 배제 그리고 상술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Tankard et al., 2001). 미디어의 이러한 사회적 의제 형성(social agenda building)은 뉴스 조직이나 저널리스트들이 특정 이벤트, 이슈, 혹은 취재원을 선택하고 강조하는 재구성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Nisbet, 2008). 언론이 구성하는 의제나 속성은 보도의 현저성(salience)을 통해 그 중요성의 정도가 정해지며(Dearing & Rogers, 1996), 그리고 그 무엇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디어가 보도하는 내용은 공중들이 무엇을(what), 그리고 어떻게(how) 생각하는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창(窓)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 의제는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대상이나 토픽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이들 뉴스 의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담론을 토론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와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사회적 담론에 대한 토론이나 평가 과정에서 미디어가 보도한 특정 의제가 어떤 속성과 관점으로 다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엔트만(Entman, 1993)의 주장대로 미디어가 강조하는 특정 대상의 내재적 속성이나 하부 토픽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뉴스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읽고, 보는 뉴스는 사회적으로 어떤 토픽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 토픽이 어떤 관점으로 평가되고 해석되는지가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Tankard et al., 2001).

2)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기능과 기사 특징

각 국가마다 운영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국적인 배포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다른 뉴스 매체에 비해 이용자들이 더 많고, 침투력이 크며(Yang, 2012; Zhang et al., 2014),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Chen & Xu, 2021). 하지만 공영(혹은 국영) 언론이 시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판적 논조를 통해 환경감시를 하는지는 별로 알려진 적이 없다(Chen & Xu, 2021). 일반적으로 정부의 후원을 받는 언론 매체는 ‘사회적 조화’와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시기에 여론을 이끄는 역할이 더 커지며(Hong, 2007; Yang, 2012), 따라서 비난이나 비판적 관점을 담아 정부의 정책을 침탈하기는 어렵다(Chen & Xu, 2021; Fox, 2021). 이 때문에 정부소유 언론 매체는 민간소유 언론 매체와 비교해 의제나 뉴스 논조, 그리고 프레임을 다르게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Chen & Xu, 2021). 언론의 보도 논조는 미디어의 소유 구조, 경제적 인센티브, 그리고 정치적 맥락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도 있다(Dunaway, 2013). 예컨대 중국 국영 언론 매체들(예: 인민일보, 신화사 통신 등)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민간 언론 매체와 달리 압도적으로 긍정적 논조로 보도한 사실이 그 예이다(Chen & Xu, 2021). 첸과 수우의 연구에 따르면 <신화사 통신>은 공산당의 권위와 정당성에 도전하거나 사회적 조

화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정도의 비판적 보도 논조를 삼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영 성격의 통신사로서 공적 언론 기능을 수행하며(임종섭, 2018; 최영재, 2016), 이런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뉴스 정보시장에서 순수 민간소유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이나 기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Johnstone & Forde, 2009; 이완수 등, 2022; 임종섭, 2018). 또한, 국내 도·소매상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언론사가 한국의 문제를 인용 보도하는 출처(source)로 활용되기 때문에 뉴스 생산과정에서 국가의 이해관계나 맥락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뉴스통신진흥회, 2018). <연합뉴스>는 정부, 기업, 언론사 등 조직 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도 폭넓게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 팬데믹 문제를 비판적으로, 또는 사회적 조화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쪽으로 보도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를 후견인으로 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정체성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일정 부분 제약할 여지가 많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보도 과정에 정부의 의중을 살피거나(최영재, 2016), 광고주와의 결탁을 통해 비윤리적 우호 보도를 하는 등 사회적 환경 감시견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김창룡, 2018). 물론 백신 접종 의제는 국민 건강과의 밀접성 때문에 무작정 부정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다. 그러하더라도 언론으로써 <연합뉴스>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제 구성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판적 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연합뉴스>가 팬데믹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의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지를 밝혀 보고, 저널리즘 규범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언론이 중요하게 다뤄온 사회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들은 팬데믹 이후 매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중요한 뉴스로 다루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언론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많지 않다.²⁾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백신 접종 증진을 위한 보도 규범에 대한 논평이 대부분이었다. 정재훈(2021)은 언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다룰 때 과학적 설명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혁민(2021)은 언론이 백신 접종 위험성을 과도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균형적인 정보 전달 기능을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민혁과 한영애(2021)는 언론의 코로나19 백신 상황에 대한 뉴스 그래픽 정보가 백신 접종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으며, 이지연과 한영애(2021)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뉴스 그래픽 통계정보가 사람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선행 연구들은 언론의 백신 접종 보도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거나 백신 접종 메시지 제시 방식이 사람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했으나, 실제로 언론이 백신 접종 문제를 어떤 형식과 내용, 그리고 의제와 관점으로 구성해 제시하는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는 없다. 언론의 보도 규범이나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

2) 국회 도서관의 자료 검색 사이트에서 ‘코로나19*언론’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385건의 자료가 나온다. ‘코로나19*백신*언론’으로 검색하면 22건이 나오는 데, 그 중 3건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언론의 역할에 관한 논문이다(2022년 11월 1일의 검색 결과).

중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미디어가 보도하는 뉴스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선행 문헌이나 연구들은 주로 ‘코로나19’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 보도와 개선 방안 연구(이상기·정준희·이정훈·박영흠,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심리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분석(전지훈·장창석, 2020), 코로나19 미디어의 보도 프레임 연구(김나영, 2020; 박주현, 2020; 조민정·이신행, 2021; 표시영, 2020), 코로나19와 정치 담론 연구(김성해, 2020; 김수경, 2020), 그리고 코로나19 보도에 사용된 언어 혹은 영상 분석(손달임, 2020; 이종수, 2020)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 연구들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언론의 보도 특징을 다루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문제는 큰 틀에서는 코로나19 의제에 포함되지만,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언론이 특별히 주목해 보도한 보건 의제이다. 하지만 언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의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예는 없었다. 매스 미디어는 건강 관련 뉴스의 유포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 기능을 하기 때문에(Royal et al., 2021), 미디어의 보도 내용분석은 관련 정보의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 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언론과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뉴스통신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뉴스에 대한 분석은 백신 접종 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물론 사람들의 백신 접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팬데믹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프레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

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경제적 결과, 정치적 결과, 그리고 보건역학적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Fox, 2021 참조). 폭스는 아시아 지역 신문을 대상으로 이슈 주목(issue attention)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보도 의제의 선택과 그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팬데믹을 정치적 의제로 다룬데 반해, 홍콩은 팬데믹의 정치화를 피하고 신중한 중립적인 입장을, 그리고 한국은 팬데믹을 경제적 위기나 기업의 활동과 연결하는 경제적 관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보도에 대한 논조는 자율적 상업주의 언론시장과 정부의 지배를 받는 통제적 언론시장 간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뉴스 미디어가 경고와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했으며, 감염속도, 사망자 수, 그리고 경제적 피해와 같은 위험하고 긴장되는 뉴스를 많이 다루었다고 보고해 왔다(Fox, 2021).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에볼라(Ebola)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 보도로 일관했으며(Savillo & Gertz, 2014), 한국 언론도 조류 독감 보도를 하면서 정부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Choi & McKeever, 2019).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언론들은 사스(SARS)가 발생했을 때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를 회피했으며(Luther & Zhou, 2005), 정부의 정치적, 재정적 통제를 받는 중국의 국영과 민영 언론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보도에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을 견지했다(Chen & Xu, 2021). 하지만 보도 논조에서는 대부분 국가 언론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위기가 완화된 시점에 가서도 경고의 수준은 낮추어지지 않았다(Fox, 2021).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개시 이후 초기에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어떤 의제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보도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유형, 주요 정보원, 취재방법 등을 분석하여 전체 보도 양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합뉴스>의 백신 접종 보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도 실무와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연합뉴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해 보도하는가?

연구문제 1은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어떤 보도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해 제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시했다.

연구문제 2: <연합뉴스>가 강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의제는 무엇이며, 보도 의제별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는 <연합뉴스>가 구성하는 주요 백신 접종 의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의제별 보도 형식과 내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제시했다.

연구문제 3: <연합뉴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보건역학 의제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 보도하는가?

연구문제 3은 연구문제 1, 2에 대한 해답을 얻은 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추출했다. 그 이유는 연구문제 2를 분석한 결과, 특별히 ‘보건역학 의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연구방법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어떻게 구성해 보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개시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합뉴스>가 보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사들이다. 분석 시기를 백신 접종 시작일을 기준으로 4개월간으로 잡은 것은 이 기간에 백신 접종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코로나19는 물론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기사, 가짜 뉴스가 많았으며 특히 ‘백신 부작용’의 이름으로 미확인 기사도 보도되었다. 뉴스는 현실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지만, 현실을 재구성해내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신接种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에게 <연합뉴스>가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선행 연구자들은 그와 관련된 뉴스를 분석해왔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기사 분석은 없었다. 본 연구는 ‘백신 접종’에 관한 최초의 내용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예방 의제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데이터 선정 및 추출

분석 기사 추출을 위해 <네이버>의 뉴스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네이버>의 뉴스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유는 국내 언론 뉴스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가 <연합뉴스> 기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합뉴스> 홈페이지의 경우는 풍부하게 기사를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검색의 기준(격일 샘플링 등)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기사 선별을 위해 <네이버> 뉴스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기사 추출은 크게 두 과정을 거쳤다. 우선 사전 작업으로서, ‘백신 접종’을 키워드로 하여 해당 기간(2021년 2월 26일~ 6월 30일)의 뉴스 전체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연합뉴스>의 기사는 모두 6,540건이 확인되었다. 이 기사를 전수 검토한 결과 동일한 헤드라인의 기사, 내용이 반복되는 기사, 1보/ 2보/ 종합 형태로 동일한 기사가 업데이트되어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백신 접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었으나 내용이 백신 접종과 무관한 기사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1보/2보의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업데이트된 기사를 최종 수집 데이터로 선택했다. 연구자들이 기사 전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홀수일과 짝수일로 기사를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보도 경향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짝수일의 기사만 별도로 추출했다.

짝수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백신 접종 시작일이 2월 26일 짝수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자들은 짝수일의 기사만을 대상으로 1차 추출 작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93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4명의 보조연구원이 1차로 추출된 기사 2,938건을 전수 검토해 그

가운데서 중복기사(헤드라인이 동일한 기사)와 백신 접종 내용과 직접 관계없이 백신 접종 용어가 단순 노출된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1,174건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되었다.

(2) 분석 유목 및 조작적 정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유목은 기사유형, 보도 대상 지역, 기사관점, 보도 의제(기사내용), 정보 제공자(취재원), 취재방법, 정보제시방법으로 구성되었다. ‘기사유형’은 기사가 작성된 형식적 특성을 의미하며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 기사 ③인터뷰 기사 ④ 사설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이트’는 육하원칙에 의해 중요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기사를 말하며, 긴급 뉴스나 속보도 모두 스트레이트 뉴스로 간주하였다. ‘해설 기사’는 특정 주제나 의제에 대해 원인, 배경, 전망 등을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분석한 기사를 말한다. ‘인터뷰 기사’는 백신이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와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를 의미하며, 사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해석과 논평을 곁들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언론사의 편집 방침과 의견을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합시론’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도 대상 지역’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1차적으로 ① 국내³⁾ ② 해외로 구분했다. 해외 지역에서는 ① 미국 ② 유럽 ③ 아시아 ④ 아프리카 ⑤ 남미 ⑥ 오세아니아 ⑦ 캐나다 ⑧ 기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두 지역이 동시에 포함된 기사에 대해서는 맥락상 비중이 크거나 더 큰 나라를 선택 기준으로 했다.

‘기사관점’은 기사가 기술된 방향을 의미하며 ① 매우 부정적 ② 다소 부정적 ③ 중립적 ④ 다소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등 5점 리커트 척도로 코딩했다. ‘매우 부정적’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3) 국내의 경우 지역별 분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초기 코로나19 감염상황과는 달리 백신 접종의 경우는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정도가 강한 내용으로 기술한 경우로 기자의 부정적 평가를 포함한 기사이다.⁴⁾ ‘다소 부정적’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부정적으로 기술한 기사이다. ‘중립적’은 단순 사실을 전달하거나 부정적 내용과 긍정적 내용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제시한 기사이다. ‘다소 긍정적’은 비판적 내용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술한 기사이다. ‘매우 긍정적’은 전체적으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술된 경우를 말한다.⁵⁾

‘정보 제공자’는 기사 내용의 주요 출처가 된 조직 혹은 인물을 의미하며 인물인 경우 소속과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정보 제공

- 4) ‘매우 부정적’ 기사의 사례로는 ‘본환자 늘고 백신수급 불안...거리두기 격상-밤 9시 영업제한 재부상’(2021년 4월 14일)을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백신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보도하였다. 본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정부는 애초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는 분위기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수급도 더 불안해지고 있다.....백신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확진자 수만 놓고.....97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이처럼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방역대책 강화를 다시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꺾을 적기를 놓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주가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경고했다.”
- 5) ‘매우 긍정적’ 기사의 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오늘 10% 넘을 듯...접종 시작 91일만’(2021년 5월 28일)을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우호적이며 접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 내에 고령층과 고위험군, 사회필수인력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천3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현재 접종 인프라 면에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어 예약률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는 헤드라인과 리드에 제시된 주요 정보 제공자를 코딩의 기준으로 삼았다. ‘취재방법’은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기자가 자료를 모은 방법을 의미한다. ‘정보제시방법’은 뉴스의 정보가 제시된 방식을 말하며, ‘숫자정보중심’은 기사 내용 대부분이 백신 접종자나 접종률 등 수치 전달에 집중하는 기사를 말하며, ‘맥락정보중심’은 다양한 관련 정보를 재구성해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를 의미한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보도 의제’는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의제 내용을 의미하며 사전 코딩을 통해 크게 ‘백신의 산업학’, ‘백신의 경제학’, ‘백신의 정치학’, ‘백신의 사회학’, ‘백신의 보건역학’, ‘백신의 교육학’ 등 여섯 가지를 추출했다. <연합뉴스>가 다룬 백신 접종 주요 보도 의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코딩 유목 개발 과정에서 30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3번의 회의를 거치며 <연합뉴스>가 강조하는 주요 보도 의제를 범주화한 결과 위에 제시한 6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추출된 보도 의제가 실제 분석에서도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코더들과 함께 전체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약 10%(120건)의 기사에 대해 프리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결정한 보도 의제가 코딩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의제의 세부 유목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보다 정교화했다.

보도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백신의 산업학’은 백신 자체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내용을 말하며, 백신을 산업적 측면에서 다룬 기사를 의미한다. 이미 개발된 백신의 경우는 ‘생산·생산능력’으로, 백신 스와핑을 포함하여 백신 공급 상황을 다룬 기사는 ‘유통 및 수급’으로, 개발 중이거나 업데이트 되는 경우는 ‘개발 진행 정도’로 코딩하였다.

‘백신의 경제학’은 백신 접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

〈표 1〉 분석 유목 및 조작적 정의 1 - 기사유형, 정보제시방법 등

유목	조작적 정의	세부유목
기사유형	기사가 작성된 형식적 특징	① 스트레이트 ② 해설 기사 ③ 인터뷰 ④ 사설 ⑤ 기타
보도 대상 지역	사건의 발생 지역	① 국내 ② 해외
구체적인 지역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보도 대상이 된 구체적인 지역	① 미국 ② 유럽 ③ 아시아 ④ 아프리카 ⑤ 남미 ⑥ 오세아니아 ⑦ 캐나다 ⑧ 기타
기사관점	기사가 기술된 방향	① 매우 부정적 ② 다소 부정적 ③ 중립적 ④ 다소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정보 제공자	기사 내용의 주요 출처가 된 조직 혹은 인물	① 대통령 ② 보건역학전문집단 혹은 소속 전문가 (ex.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③ 보건역학과 무관한 정부기관(ex. 행안부) ④ 정치인 ⑤ 일반 시민 ⑥ 시민단체 ⑦ 해외전문기관 및 전문가, 국제기구 ⑧ 해외 언론 ⑨ 익명의 취재원 ⑩ 기타
뉴스 소스	기자가 관련 뉴스를 제공하거나 인용한 방법	① 직접 취재(특파원 포함) ② 보도자료인용 ③ 소셜 미디어/ 인터넷 게시물 ④ 외신보도 활용 ⑤ 기타
정보제시방법 *	뉴스의 주요 정보가 제시된 형태	① 숫자정보중심 ② 맥락정보중심

* Gigerenzer(2015)의 구분법 참고

사로서, 경제 성장률/수출/실업률 등 국가 경제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는 ‘국가거시경제’로, 기업 투자/위축/고용 등 기업들의 산업 동향에 관한 내용은 ‘기업(산업)경제’로, 개인 자영업자/가게 경제 등 개인 경제를 다룬 것은 ‘소비 경제’로 분류하였다.

‘백신의 정치학’은 백신 수급/접종 등이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 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기사에 제한해 코딩하였다. ‘백신 접종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나 ‘여당의 백신 접종 홍보’, ‘야당의 백신 접종 비판’, ‘대통령의 백신 언급’등이 이에 해당된다.

‘백신의 사회학’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 사회적 분위기, 민간 차원에서의 반응 등을 의미하는데 여론의 방향과 의견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① 백신 접종 참여(서두르기/빨리 접종 등) ② 백신 접종 기피(접종의 두려움/부작용 공포 등으로 인한 기피 움직임) ③ 백신 접종 갈등 ④ 거리두기 비협조(유흥업소, 다중시설 이용 등) ⑤ 마스크 쓰기 거부 ⑥ 기타로 구성되었다.

‘백신의 보건역학’은 백신 접종을 의학, 과학, 보건 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말하며 그 내용은 ① 백신 접종 상황(백신 접종자 수/접종률 목표/순조로운 진행/접종 속도-가속화, 느림 등) ② 백신 접종 대상(접종 연령·대상·시기에 대한 정보나 내용) ③ 백신별 효능 비교 ④ 백신 접종 독려(질병관리청장 등 의료 단체 관련자 독려, 접종자 혜택 등) ⑤ 백신 접종 시행착오(배달 실수/저장 온도 오류/부정 접종/의료진 실수/신청 애로/홈페이지 다운/접종 보류 등) ⑥ 감염자 현황(신규 감염/돌파 감염/무증상 환자 등) ⑦ 백신 접종 부작용(사망/마비/혈전/후유증/기타 등 인과관계에 관한 기사) ⑧ 백신 접종 추가 정책(변이/부스터샷 필요성/교차 접종/N차 유행/집단 면역 등) ⑨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조정 ⑩ 기타로 구성되었다. 프리테스트를 통해 정교화한 코딩 유목에서 ‘백신의 보건역학’이 가장 다양하고 내용이 많았다.

〈표 2〉 분석 유목 및 조작적 정의 2 -보도 의제

의제	조작적 정의	주요 내용
백신의 산업학	백신 자체의 생산/수급/ 소비 등 백신 산업과 관련된 내용	① 생산·생산 능력 ② 유통 및 수급 ③ 개발 진행 정도
백신의 경제학	백신 접종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관련 내용	① 국가거시경제 ② 기업(산업)경제 ③ 소비 경제
백신의 정치학	백신 수급/접종 등이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된 경우(국내 기사에 한함)	① 여·야 의견 대립 ② 여당의 백신 정책 홍보 ③ 야당의 백신 정책 비판 ④ 대통령의 백신 언급 ⑤ 기타
백신의 사회학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 분위기, 민간 차원에서의 반응	① 백신 접종 참여 ② 백신 접종 기피 ③ 백신 접종 갈등 ④ 거리두기 비협조 ⑤ 마스크 쓰기 거부 ⑥ 기타
백신의 보건역학	백신 접종을 의학, 과학, 보건 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	① 백신 접종 상황 ② 백신 접종 대상 ③ 백신별 효능 비교 ④ 백신 접종 독려 ⑤ 백신 접종 시행착오 ⑥ 감염자 현황 ⑦ 백신 접종 부작용 ⑧ 백신 접종 추가 정책 ⑨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조정 ⑩ 기타
백신의 교육학	백신 접종과 교육 현장을 연결한 기사	① 교육 방법 ② 수업의 수준/질 ③ 교육격차 ④ 교육비/등록금 논쟁

마지막으로 ‘백신의 교육학’은 백신 접종과 교육 현장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며 ① 교육 방법(대면 수업/비대면 수업/병행 등) ② 수업의 수준/질 ③ 교육격차 ④ 교육비/등록금 논쟁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3) 코더 교육 및 코딩

코더 교육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면 1회, 줌(zoom)을 통한 비대면 3회를 실시했다. 코딩 유목을 개발하고 조작적 정의를 완료한 후, 유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6명(연구자 2명, 보조연구원 4명)이 참여하여 1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코딩 유목의 조작적 정의를 정교화했다.⁶⁾ 또한 코더 간 신뢰도뿐만 아니라 연구자 간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 2명이 1, 2차 코더 교육에 모두 참여하였다.

1차 교육 후, 본 기사의 10%에 해당하는 120개 기사를 프리테스트를 했고, 본 조사에 참여할 일관성 높은 최종 코더 두 명을 결정했다. 충실한 코딩을 위해 프리테스트에서 서로 다르게 코딩한 부분을 확인한 뒤에 2차 코더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코더들이 본 조사 분석을 위해 기사 1,174개를 대상으로 코딩을 했다.

코딩에는 약 10일이 걸렸다. 코딩 결과를 연구자 중 1명이 최종 점검하고,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 수준은 코더 간 분류 확률의 비동등성(heterogeneity)을 가정하는 코헨의 카파(Cohen's k) 공식을 이용해 측정했다.⁷⁾ 코더 2명이

6) 특히 ‘취재방법’에서 ‘직접 취재’와 ‘외신 보도 활용’이 모호한 경우 있었는데, 문맥을 고려할 때 직접 취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외신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외신 보도 활용’으로 코딩하였다.

7) 코헨의 카파(k) 공식은 다음과 같다. $k = \frac{\text{관찰일치}(\%) - \text{기대일치}(\%)}{1 - \text{기대일치}(\%)}$ (Riffe & Fico, 1998).

코딩한 데이터의 10%인 120건을 대상으로 신뢰도 수준을 확인한 뒤 차이가 있을 경우 재교육과 서로 협의를 통해 일치도를 높이도록 했다. 분석 항목별 신뢰도 수준은 기사유형 0.939, 보도 지역 1.000, 구체적인 보도 지역 0.897, 기사논조 0.870(논조는 ‘부정’, ‘중립’, ‘긍정’으로 명목 척도화했다)⁸⁾, 보건역학 0.899, 정보 제공자 0.817, 취재방법, 0.872, 정보제시유형 0.853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계수를 보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을 위한 코드북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백신 관련 기사를 토대로 이론에 근거해 작성했다. 연구자들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코드북 내용을 내외적 타당도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코딩 유목의 조작적 정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의 뉴스 구성 방식

분석 기간인 2021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합뉴스>가 보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기사의 보도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매우 부정(23건), 다소 부정(137건), 중립(876건), 다소 긍정(129건), 그리고 매우 긍정(4건)으로 코딩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표 3〉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기사유형 빈도(%)		기사관점 빈도(%)	
스트레이트	229 (19.6)	부정적	160 (13.7)
해설	933 (79.5)	중립적	876 (74.9)
사설/논평	11 (0.9)	긍정적	133 (11.4)
전체	1,173 (100)	전체	1,169 (100)
뉴스소스 빈도(%)		정보제공자 빈도(%)	
직접 취재	74 (6.3)	대통령	23 (2.0)
보도자료 인용	696 (59.3)	보건역학전문가 그룹	359 (30.6)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물 인용	18 (1.5)	보건역학과 무관한 정부기관	340 (29.0)
외신 보도 활용	374 (31.9)	정치인	76 (6.5)
기타	12 (1.0)	일반 시민	28 (2.4)
전체	1,174 (100)	시민단체	5 (0.4)
		해외전문기관, 전문가, 국제기구	37 (3.2)
보도의제 빈도(%)		해외언론	
산업학	73(6.2)	기타	114 (9.7)
경제학	68(5.8)	전체	1,174 (100)
정치학	28(2.4)		
사회학	26(2.2)		
보건역학	882(75.1)		
교육학	10(0.9)		
기타	87(7.4)		
전체	1,174(100)		

먼저, 기사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주제나 의제에 대한 원인, 배경, 전망 등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분석하는 해설 기사가 79.6%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이트 기사(19.4%), 사설/논평(0.9%) 순으로 나타났다. 해설 기사가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월등히 많은 점은 특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 문제를 보도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재보도하기 보다는 정부나 전문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해설성 기사로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사관점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중립적 논조(74.9%)로 다뤄졌으며, 부정적인 논조(13.7%), 긍정적 논조(11.4%)순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는 중립적 논조가 두드러지게 많은데 반해, 부정적인 논조 기사는 적었다. <연합뉴스>의 이런 보도 논조는 언론은 사회문제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도한다는 일반 보도 관행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 문제를 보도하면서 중립적 관점에 비중을 두는 대신에, 부정적인 관점을 상대적으로 적게 다룬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부의 백신 접종 정책을 알리고 지지하는 내부의 편집 정책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제에 대한 취재방법은 보도자료 활용(59.3%)이 가장 많았으며, 외신보도 활용(31.9%), 직접 취재(6.3%),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용(1.5%)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활용과 외신보도 활용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기자들의 현장 취재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이는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에 관한 한 적어도 의제 발굴을 위해 발로 뛰는 취재 대신 정부기관이나 전문역학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외신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더 충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제시방법은 예상과는 달리 맥락중심보도(70.8%)가 숫자중심보도(29.2%)보다 많았다. 백신 접종 의제 보도지역은 국내가 58.3%, 해외가 41.7%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보도 국가는 미국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29.2%), 유럽(27.2%), 남미(8.4%), 아프리카(2.5%) 순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일수록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관련 보도 건수가 많은데 반해, 후진국이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관련 기사가 적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의제는 보건역학이 75.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백신 산업학(6.2%), 백신 경제학(5.8%), 백신 정치학(2.4%) 순으로 나타났다. 10개 기사 가운데 7개 이상이 보건역학에 대한 의제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 제공자는 보건역학 전문가 그룹이 30.6%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29.0%), 해외언론(16.4%), 정치인(6.5%), 그리고 해외전문가(3.2%)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보건역학과 무관한 정부기관의 인용 비율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이는 보도자료 활용 비율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취재원이 보건복지부 이외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연구문제 2: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의제별 뉴스 구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보도 의제별 기사유형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교육학(40.0%)과 백신 정치학(32.1%)은 스트레이트 기사, 백신 경제학(97.1%)과 사회학(92.3%)은 해설 기사로 작성되었다. 백신 의제별 기사 논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 기사가 가장 많았지만, 의제에 따라 보도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백신의 사회학(53.8%)과 정치학(28.6%)은 부정적 관점의 기사 비율이 높는데 반해, 백신의 경제학(33.9%)은 긍정적 관점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백신 접종 의제 영역에 따라 논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흥미

로운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백신 접종 문제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다룰 때에는 부정적인 논조 기사가 많았지만, 반대로 백신 접종 문제를 경제적, 또는 보건역학적 관점에서 다룰 때에는 긍정적

〈표 4〉 보도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산업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보건역학	교육학	기타	전체
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8 (11.0)	2 (2.9)	9 (32.1)	1 (3.8)	186 (21.1)	4 (40.0)	19 (21.8)	229 (19.5)
	해설	64 (87.7)	66 (97.1)	19 (67.9)	24 (92.3)	687 (78.0)	6 (60.0)	67 (77.0)	933 (79.5)
	사설, 논평	1 (1.4)	-	-	1 (3.8)	8 (0.9)	-	1 (1.1)	11 (0.9)
	전체	73 (6.2)	68 (5.8)	28 (2.4)	26 (2.2)	881 (75.1)	10 (0.9)	87 (7.4)	1,173 (100)
기사 관점	부정적	12 (16.4)	11 (16.2)	8 (28.6)	14 (53.8)	97 (11.1)	1 (10.0)	17 (19.5)	160 (13.7)
	중립적	54 (74.0)	34 (50.0)	18 (64.3)	12 (46.2)	682 (77.8)	9 (90.0)	67 (77.0)	876 (74.9)
	긍정적	7 (9.6)	23 (33.8)	2 (7.1)	-	98 (11.2)	-	3 (3.4)	133 (11.4)
	전체	73 (6.2)	68 (5.8)	28 (2.4)	26 (2.2)	877 (75.0)	10 (0.9)	87 (7.4)	1,169 (100)
정보 제시	숫자정보중심	8 (11.0)	29 (42.6)	3 (10.7)	1 (3.8)	290 (32.9)	-	12 (13.8)	343 (29.2)
	맥락정보중심	65 (89.0)	39 (57.4)	25 (89.3)	25 (96.2)	592 (67.1)	10 (100.0)	75 (86.2)	831 (70.8)
	전체	73 (6.2)	68 (5.8)	28 (2.4)	26 (2.2)	882 (75.1)	10 (0.9)	87 (7.4)	1,174 (100)
뉴스 소스	직접 취재	2 (2.7)	4 (5.9)	7 (25.0)	-	60 (6.8)	-	1 (1.1)	74 (6.3)
	보도자료 인용	25 (34.2)	48 (70.6)	19 (67.9)	9 (34.6)	546 (61.9)	10 (100.0)	39 (44.8)	696 (59.3)
	소셜미디어/인터넷 게시글 이용	2 (2.7)	-	2 (7.1)	-	14 (1.6)	-	-	18 (1.5)
	외신 보도 활용	44 (60.3)	16 (23.5)	-	17 (65.4)	262 (29.7)	-	35 (40.2)	374 (31.9)
	기타	-	-	-	-	-	-	12 (13.8)	12 (1.0)
	전체	73 (6.2)	68 (5.8)	28 (2.4)	26 (2.2)	882 (75.1)	10 (0.9)	87 (7.4)	1,174 (100)
보도 지역	국내	21 (28.8)	31 (45.6)	28 (100)	7 (26.9)	543 (61.6)	10	45 (51.7)	685 (58.3)
	해외	52 (71.2)	37 (54.4)	-	19 (73.1)	339 (38.4)	-	42 (48.3)	489 (41.7)
	전체	73 (6.1)	68 (5.8)	28 (2.4)	26 (2.2)	882 (75.1)	10 (0.9)	87 (7.4)	1,174 (100)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표 4〉 보도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계속)

		산업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보건역학	교육학	기타	전체
보도 국가	미국	10 (19.2)	27 (73.0)	-	6 (31.6)	91 (26.8)	-	13 (31.0)	147 (30.1)
	유럽	15 (28.8)	2 (5.4)	-	4 (21.1)	106 (31.3)	-	6 (14.3)	133 (27.2)
	아시아	18 (34.6)	5 (13.5)	-	6 (31.6)	96 (28.3)	-	18 (42.9)	143 (29.2)
	아프리카	3 (5.8)	-	-	1 (5.3)	8 (2.4)	-	-	12 (2.5)
	남미	5 (9.6)	2 (5.4)	-	2 (10.5)	27 (8.0)	-	5 (11.9)	41 (8.4)
	오세아니아	-	-	-	-	3 (0.9)	-	-	3 (0.6)
	캐나다	1 (1.9)	-	-	-	8 (2.4)	-	-	9 (1.8)
	기타	-	1 (2.7)	-	-	-	-	-	1 (0.2)
	전체	52 (10.6)	37 (7.6)	-	19 (3.9)	339 (69.3)	-	42 (8.6)	489 (100)
정보 제공자	대통령	4 (5.5)	1 (1.5)	1 (3.6)	-	15 (1.7)	-	2 (2.3)	23 (2.0)
	보건역학전문가 그룹	24 (32.9)	-	-	2 (7.7)	329 (37.3)	-	4 (4.6)	359 (30.6)
	보건역학과 무관한 정부기관	13 (17.8)	13 (19.1)	5 (17.9)	5 (19.2)	275 (31.2)	5 (50.0)	24 (27.6)	340 (29.0)
	정치인	5 (6.8)	3 (4.4)	21 (75.0)	-	39 (4.4)	4 (40.0)	4 (4.6)	76 (6.5)
	일반시민	-	3 (4.4)	-	-	24 (2.7)	-	-	28 (2.4)
	시민단체	-	-	-	-	2 (0.2)	-	-	5 (0.4)
	해외전문기관, 전문가, 국제기구	5 (6.8)	17 (25.0)	-	-	13 (1.5)	-	1 (1.1)	37 (3.2)
	해외언론	16 (21.9)	8 (11.8)	-	11 (42.3)	132 (15.0)	-	25 (28.7)	192 (16.4)
	기타	6 (8.2)	23 (33.8)	1 (3.6)	3 (11.5)	53 (6.0)	1 (10.0)	27 (31.0)	114 (9.7)
	전체	73 (6.2)	68 (5.8)	28 (2.4)	26 (2.2)	882 (75.1)	10 (0.9)	87 (7.4)	1,174 (100)

논조 기사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언론이 백신 접종 보도 내용 가운데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역은 갈등이나 대립의 관점에서 다루는데 반해, 백신의 경제적 의제, 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역학적 의제는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전달하거나 긍정적 관점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보도 의제에 따른 정보제시방법을 분석

한 결과에서는 백신의 경제학(42.6%)과 보건역학(32.9%)은 숫자정보중심의 기사 비율이 많았다. 이에 반해 백신 교육학(100.0%), 백신 사회학(96.2%), 백신 정치학(89.3%)에 대한 기사는 맥락정보중심 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는 의제의 특성에 따라 숫자로 정보가 제시되기도 하고, 맥락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의 경우 백신 접종 문제를 보도하면서 경제적 관점과 보건역학 관점에서의 백신보도는 상대적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신 경제에 관련된 의제나 감염 또는 접종에 대한 보건역학 의제 보도는 그 속성상 숫자, 통계, 데이터 등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에 반해 백신 문제를 교육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산업적 관점에서 다룰 때에는 의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담론이나 맥락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보도 의제별 취재방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접 취재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백신의 정치학(25.0%)은 직접 취재 비율이 높는데 반해, 백신의 교육학(100.0%), 백신의 경제학(70.6%), 그리고 백신의 보건역학(61.9%)은 보도자료 인용을 통해 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예외적으로 백신의 사회학(65.4%)과 백신의 산업학(60.3%)은 외신보도 활용이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보도 의제별 보도지역은 백신 정치학(100.0%), 백신 보건역학(61.6%)과 경제학(45.6%)은 국내가, 백신 사회학(73.1%)과 백신 산업학(71.2%)은 해외가 각각 그 비중이 높았다. 보도국가에 있어서는 백신 경제학(73.0%)은 미국, 백신 보건역학(31.1%)은 유럽, 그리고 백신 산업학(34.6%)은 아시아지역에서 그 비중이 많았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관련 의제가 미미했다.

3) 연구문제 3: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건역학 의제의 뉴스 구성과 특징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보건역학’ 의제만 따로 떼어내어 취재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보건역학 의제별 기사유형은 전체적으로 해설 기사 비율(78.0%)이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감염자현황 의제(32.6%)가 다른 의제와 비교해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다. 백신 접종추가정책 의제(87.1%)와 백신 접종대상 의제(84.3%)는 해설 기사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의제(7.3%)는 사설/논평에서 다른 의제에 비해 두드러졌다.

의제별 기사관점에서는 백신 접종추가정책 의제(38.7%)와 백신 접종시행착오 의제(26.7%)의 경우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백신 접종 부작용 의제(90.0%)와 백신 접종대상 의제(86.5%)는 중립적 관점의 기사가 많았다. 정보제시는 전체적으로 맥락정보중심 기사가 많은 가운데 감염자현황 의제(77.3%)만 유일하게 숫자정보중심 기사가 많았다. 백신 접종상황 의제(41.9%)도 숫자정보 중심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적 거리두기 의제(98.2%)와 백신 접종독려 의제(99.1%)는 맥락정보중심 기사로 주로 기술되었다.

보건역학의제별 뉴스 소스 분석결과, 대부분 의제는 보도자료에 의존했으며 백신 접종 부작용 의제(79.0%)와 감염자 현황 의제(76.2%)는 특히 보도자료 인용 비율이 높았다. 직접 취재는 모든 의제에 걸쳐 낮은 가운데 백신 접종독려 의제(19.0%) 기사 비율에서만 약간 높았다. 외신보도 활용에서는 백신 접종 추가정책 의제(61.3%)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제별 보도지역은 백신 접종 부작용 의제(75.0%)는 국내 지역에서, 백신 접종 효용비교 의제(100.0%)와 백신 접종 추가정책(77.4%)은 예외적으로 해외 지역 기사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역학 의제별 보도 국가는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이 전체적

〈표 5〉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거리두기												
백신접종 상황	백신접종 대상	백신접종 효능 비교	백신별 독려	백신접종 시행착오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 부작용	백신접종 추가경제 상·하향 조정	단계	기타	전체		
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34 (17.2)	12 (13.5)	-	23 (20.0)	2 (13.3)	56 (32.6)	23 (23.0)	3 (9.7)	7 (12.7)	26 (25.0)	186 (21.1)
	해설	163 (82.3)	75 (84.3)	2 (100.0)	92 (80.0)	13 (86.7)	116 (67.4)	77 (77.0)	27 (87.1)	44 (80.0)	78 (75.0)	687 (78.0)
	사설·논평	1 (0.5)	2 (2.2)	-	-	-	-	-	1 (3.2)	4 (7.3)	-	8 (0.9)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5 (100)	15 (100)	172 (100)	100 (100)	31 (100)	55 (100)	104 (100)	881 (100)
기사 관점	부장적	21 (10.6)	4 (4.5)	-	3 (2.6)	4 (26.7)	27 (16.1)	8 (8.0)	12 (38.7)	6 (10.9)	12 (11.5)	97 (11.1)
	중립적	149 (75.3)	77 (86.5)	-	82 (71.3)	11 (73.3)	133 (79.2)	90 (90.0)	17 (54.8)	40 (72.7)	83 (79.8)	682 (77.8)
	긍정적	28 (14.1)	8 (9.0)	2 (100)	30 (26.1)	-	8 (4.8)	2 (2.0)	2 (6.5)	9 (16.4)	9 (8.7)	98 (11.2)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5 (100)	15 (100)	168 (100)	100 (100)	31 (100)	55 (100)	104 (100)	877 (100)

〈표 5〉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계속 1)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										빈도(%)		
	백신접종 상황	백신접종 대상	백신접종 효능 비교	백신별 독려	백신접종 시행착오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 부작용	백신접종 추가경책	단계 상·하향 조정	기타	전체		
정보 제시	숫자정보중심	83 (41.9)	17 (19.1)	-	1 (0.9)	2 (13.3)	34 (34.0)	6 (19.4)	1 (1.8)	13 (12.5)	290 (32.9)		
	맥락정보중심	115 (58.1)	72 (80.9)	2 (100)	115 (99.1)	13 (86.7)	66 (66.0)	25 (80.6)	54 (98.2)	91 (87.5)	592 (67.1)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6 (100)	15 (100)	100 (100)	31 (100)	55 (100)	104 (100)	882 (100)		
뉴스 소스	직접 취재	12 (6.1)	10 (11.2)	-	22 (19.0)	1 (6.7)	2 (2.0)	1 (3.2)	4 (7.3)	7 (6.7)	60 (6.8)		
	보도자료 인용	135 (68.2)	50 (56.2)	-	55 (47.4)	5 (33.3)	79 (79.0)	10 (32.3)	24 (43.6)	57 (54.8)	546 (61.9)		
	소셜 미디어/인터넛 게시글 인용	5 (2.5)	2 (2.2)	-	1 (0.9)	2 (13.3)	1 (1.0)	1 (3.2)	-	2 (1.9)	14 (1.6)		
외신 보도 활용	외신 보도 활용	46 (23.2)	27 (30.3)	2 (100)	38 (32.8)	7 (46.7)	18 (18.0)	19 (61.3)	27 (49.1)	38 (36.5)	262 (29.7)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6 (100)	15 (100)	100 (100)	31 (100)	55 (100)	104 (100)	882 (100)		

〈표 5〉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계속 2)									
	거리두기									
	백신접종 상황	백신접종 대상	백신접종 효능 비교	백신별 독려	백신접종 시행착오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 부작용	백신접종 추가정책 상·하향 조정	기타	전체
보도 지역	국내	129 (65.2)	55 (61.8)	-	74 (63.8)	7 (46.7)	119 (69.2)	75 (75.0)	7 (22.6)	543 (61.6)
	해외	69 (34.8)	34 (38.2)	2 (100)	42 (36.2)	8 (53.3)	53 (30.8)	25 (25.0)	24 (77.4)	339 (38.4)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6 (100)	15 (100)	172 (100)	100 (100)	31 (100)	882 (100)
보도 국가	미국	13 (18.8)	7 (20.6)	-	20 (47.6)	-	14 (26.4)	6 (24.0)	8 (33.3)	91 (26.8)
	유럽	22 (31.9)	15 (44.1)	2 (100)	6 (14.3)	3 (37.5)	2 (3.8)	10 (40.0)	9 (37.5)	106 (31.3)
	아시아	21 (30.4)	11 (32.4)	-	14 (33.3)	3 (37.5)	21 (39.6)	6 (24.0)	1 (4.2)	96 (28.3)
	아프리카	3 (4.3)	-	-	-	-	2 (3.8)	-	2 (8.3)	8 (2.4)
	남미	6 (8.7)	1 (2.9)	-	-	1 (12.5)	13 (24.5)	1 (4.0)	3 (12.5)	27 (8.0)

〈표 5〉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계속 3)	
	백신접종 상황	백신접종 대상	백신접종 효능 비교	백신별 독려	백신접종 시행착오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 부작용	백신접종 추가정책 상·하향 조정	거리두기 단계	기타	전체
보도 국가	1 (1.4)	-	-	-	-	1 (1.9)	1 (4.0)	-	-	-	3 (0.9)
	3 (4.3)	-	-	2 (4.8)	1 (12.5)	-	1 (4.0)	1 (4.2)	-	-	8 (2.4)
	69 (100)	34 (100)	2 (100)	42 (100)	8 (100)	53 (100)	25 (100)	24 (100)	36 (100)	46 (100)	339 (100)
정보 제공자	5 (2.5)	-	-	4 (3.4)	-	2 (1.2)	-	-	4 (7.3)	-	15 (1.7)
	92 (46.5)	28 (31.5)	1 (50.0)	27 (23.3)	4 (26.7)	41 (23.8)	67 (67.0)	17 (54.8)	20 (36.4)	32 (30.8)	329 (37.3)
	54 (27.3)	29 (32.6)	-	34 (29.3)	2 (13.3)	98 (57.0)	17 (17.0)	3 (9.7)	12 (21.8)	26 (25.0)	275 (31.2)
무관한 정부 기관	9 (4.5)	3 (3.4)	-	10 (8.6)	1 (6.7)	2 (1.2)	-	2 (6.5)	6 (10.9)	6 (5.8)	39 (4.4)

〈표 5〉 보건역학 의제별 뉴스 구성과 특징

빈도(%) (계속 4)									
	백신접종 상황	백신접종 대상	백신접종 효능 비교	백신접종 독려	백신접종 시행착오	백신접종 감염자 현황	백신접종 부작용	백신접종 추가정책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조정
일반시민	3 (1.5)	4 (4.5)	-	10 (8.6)	1 (6.7)	-	2 (2.0)	-	3 (5.5)
시민단체	-	-	-	-	-	-	-	-	2 (1.9)
해외전문기관, 국제기구	4 (2.0)	-	-	-	-	4 (2.3)	-	-	5 (4.8)
정보 제공자	28 (14.1)	18 (20.2)	1 (0.5)	16 (13.8)	6 (40.0)	22 (12.8)	9 (9.0)	8 (25.8)	9 (16.4)
해외언론	3 (1.5)	7 (7.9)	-	15 (12.9)	1 (6.7)	3 (1.7)	5 (5.0)	1 (3.2)	1 (1.8)
기타	-	-	-	-	-	-	-	-	-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6 (100)	15 (100)	172 (100)	100 (100)	31 (100)	55 (100)
전체	198 (100)	89 (100)	2 (100)	116 (100)	15 (100)	172 (100)	100 (100)	31 (100)	55 (100)

으로 많은 가운데 보도 국가별로 의제가 달랐다. 미국은 백신접종률(47.6%)가, 유럽지역 국가는 기타 관련 의제(52.2%)와 백신 접종대상 의제(44.1%) 기사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감염자 현황 의제는 아시아 국가들(39.6%)과 남미지역 국가들(24.5%)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보건역학 의제별 정보 제공자는 전체적으로 보건역학전문가 그룹 비율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의제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제는 대통령(7.3%)과 정치인(10.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백신 접종 부작용 의제는 보건역학전문가 그룹(67.0%)이, 감염자 현황 의제는 보건역학과 무관한 정부기관(57.0%)이, 그리고 백신 접종시행 착오 의제는 해외언론 인용(40.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 결론과 함의점

이 연구는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상호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의제를 구성해 보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매체의 정체성,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도매상으로서의 위상, 수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 의제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조직해 구현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연합뉴스>는 직접 취재보다는 정부나 관련 정부 기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하는 해설성 기사를 많이 생산했다. 이는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보도자료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뉴스를 제작해 왔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고,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뉴스는 대체로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다른 언론사의 보도 경향과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을 단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더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팬데믹 백신 접종 의제는 가치 배제적인 중립적인 논조를 견지하는 쪽으로 보도가 이뤄졌는데 이는 공영 또는 국영 매체의 경우 건강 위기에 대한 이슈를 보도할 때 긍정적 논조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Chen & Xu, 2021)와 일치한다.

백신 접종 이슈를 다루면서 국가적으로 선택적 편향 보도를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합뉴스>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부 중국, 일본 등 소수 아시아 국가에서 발신되는 의제에 집중해 보도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선택, 강조하는 백신 접종 의제는 달랐다. 미국은 백신 접종독려 의제가, 유럽은 백신 접종대상 의제가 중심으로 보도되었으나,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자 현황 의제를 중점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백신 접종 보도를 주요 의제별로 유형화한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보건역학 관련 의제가 압도적(75%)으로 많았다. 백신 접종의 속성상 보건역학 의제가 많은 점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나 백신의 산업,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다른 의제들은 미미하게 다뤄졌다. 이러한 결과는 <연합뉴스>가 정부나 관련 예방역학 전문기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를 뉴스로 생산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도 의제에 따라 뉴스 형식과 구성에 차이를 보인 점도 흥미롭다. 백신 정치학은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으나, 백신 경제학이나 사회학은 해설 기사가 많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백신의 경제적 의제와 산업적 의제, 그리고 사회적 관련 의제의 경우는 해설성 기사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취재 내용이나 속성에

따라 뉴스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백신 접종 의제별로 보도 논조에 차이를 보였다. 보건역학 의제는 대체로 중립적 논조가 가장 많았으나, 백신 접종에 대한 공중들의 여론이나 백신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이나 논쟁과 관련된 백신 정치학은 부정적 논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백신 경제학은 긍정적 논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합뉴스>가 의제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신 접종 의제에 따라 취재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시사점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직접 취재보다는 보도자료에 주로 의존해 보도가 이뤄졌으나 백신 정치학은 직접 취재 비율이, 백신 경제학과 보건역학은 보도 자료 인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합뉴스>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보건역학 의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해설 기사가 많았지만, 하부 의제, 즉 코로나19 감염자 현황 의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백신 접종 추가정책이나 백신 접종 의제는 해설 기사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제는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부각 되었다. 코로나19 감염현황은 정부가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자료나 데이터에 의존해 보도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백신 접종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에 관한 의제는 해설성 기사로 재구성되어 관련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달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의제는 사회적 캠페인성 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전달되었을 수 있다.

보건역학에 관련한 하부 의제에 따라 보도 논조에 차이를 보인 점도 새로운 발견이다. 백신 접종 추가정책이나 백신 접종 시행착오에 대한 의제는 부정적 논조 비율이 높는데 반해, 백신 접종 부작용이나 백신 접종 대상 의제의 경우는 중립적 논조 비율이 많았다. <연합뉴스>는 백신을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추가적으로 접종할 것인가 하

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 인식을 줄 수 있는 백신의 부작용 문제는 중립적 논조로 구성해 차별적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이러한 보도 관행은 뉴스 미디어들은 팬데믹의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극화하거나 감정이입적인 경고성 기사를 내보내지만, 공영 뉴스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정부를 비난 또는 비판하는 보도 관행을 상대적으로 자제한다는 선행 연구(Fox, 2021)와 부합한다.

정보구성방식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이나 백신 접종상황은 주로 숫자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해 보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발표하는 감염자와 접종상황을 통계 숫자를 중심으로 단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 숫자정보는 외견상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비춰주지만, 그렇다고 숫자가 코로나의 실체를 보여주거나 위험과 예방을 위한 결정적 정보는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숫자나 통계정보만으로는 현실의 그림(picture of reality)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완수, 2021; Cohn & Cope, 2012). 뉴스 속 숫자는 때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며, 숫자가 도드라지며 실체와 맥락은 사라져 버린다.

보건역학의 하부 의제 속성에 따라 취재방식의 차이를 보인 점도 흥미롭다. 백신 접종 부작용 의제나 감염자 현황 의제는 보도자료에 근거해 뉴스로 작성된데 반해, 백신 접종 독려에 대한 의제는 직접 취재를 통해 이뤄졌다. 의제의 내용이나 성격이 집단적일수록 보도자료에 의존했으며, 개별적일수록 직접 취재 의존도가 높았다. 해외 지역별 의제 선택의 차이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선택적 보도 관행을 보여준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로 백신 접종 독려에 관한 의제가 많았으며, 유럽지역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감염자 현황에 대한 의제에 집중되었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은 의제를, 후

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호감도가 낮은 혐오 의제를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한국 언론들의 국제 뉴스 보도 관행이 <연합뉴스>의 백신 접종 보도 의제 구성에서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국가 간 불평등 보도는 특정 지역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편견이나 혐오를 낳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아니다(김성해·유용민·심영섭, 2011).

<연합뉴스>가 보도한 백신 접종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보도 규범 차원에서 토론했다. 첫째는 <연합뉴스>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접종 의제를 비교적 중립적 논조로 전달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많은 언론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감정적으로 보도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데 반해, <연합뉴스>는 중립적 톤으로 백신 접종 의제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에 관한 해외 상황을 비중있게 국내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선진국이나 주변 이웃 국가들의 팬데믹이나 백신 접종 현실을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내 뉴스 수용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예방 행동과 위험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선행적인 정보 전달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셋째는 백신 접종 의제를 맥락정보중심으로 구성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사실을 파편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만하다.

하지만 헬스 저널리즘 규범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점도 확인되었다. 첫째는 <연합뉴스>가 국민 건강 위기 상황에서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정부의 백신 정책을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겠지만, 하나의

언론사로서 예방적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백신 접종에 대한 해외 뉴스를 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해 특정 국가나 지역 보도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연합뉴스>의 이런 보도 편향 관행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과다생산하고, 다른 지역은 배제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혐오, 그리고 편견을 야기할 수도 있다. 셋째는 정보원 선택에서 보건역학 전문가의 비중이 크지만, 동시에 백신 접종과 무관한 정부 관리들의 말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건강·과학 영역의 논의가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있다. 넷째는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 문제를 다루면서 비교적 맥락정보중심으로 다룬 면은 긍정적이지만, 숫자정보중심의 기사 비율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은 보도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주식시세를 알리듯이 숫자 중심의 정보를 중계함으로써 백신 접종이 우리 사회에 주는 본질적인 문제와 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섯째는 이번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취재 기사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는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거나 받아쓰기에 치중함으로써 팬데믹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의제가 무엇이 문제이며,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예방 현장에서 이뤄지며, 이는 보건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백신 접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보도했으며, 어떤 의제를 생산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언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팬데믹 예방 환경감시에 기여한 점과 보도 규범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의 백신 접종 의제가 일반 시민과 다른 언론 매체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 보지 못했다. 또한, 백신 접종 의제에 대한 내용분석을 <연합뉴스> 데이터로 제한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른 언론 매체에 나타난 백신 접종 의제의 보도 특징과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뉴스통신사는 물론 방송사, 신문사 간의 의제 구성을 상호 비교해 보거나 공영 언론과 민영 언론간의 비교 연구를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들이 백신 접종 의제를 어떻게 구성해 보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제시해 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제를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과 이를 게이트키퍼하는 편집국(또는 보도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백신 접종 의제의 뉴스 가치와 보도 관행에 대한 선택 기준과 과정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참고문헌

- 김경모 · 김지현 · 김창숙 · 박재영 · 배정근 · 이나연 · 이완수 · 이재경 (2021). <버릴 관행 지킬 원칙: 취재 보도 바로 세우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모 · 박재영 · 배정근 · 이나연 · 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나영 (2020). 러시아 언론에서 나타난 미디어 프레임 유형 연구-Bec ти의 COVID-19 보도에 대한 프레임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5권 3호, 77-95.
- 김민혁 · 한영애 (2021).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진을 위한 뉴스 그래픽 연구: 건강신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2-93.
- 김성해 (2020). 미국패권의 조력자 혹은 다자주의 촉진자?: ‘코로나 19’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패권경쟁과 국내 언론의 담론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7-47.
- 김성해 · 유용민 · 심영섭 (2011).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국제 뉴스. 언론정보연구, 48(2), 181-222.
- 김수경 (2020).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 (反中)현상. <다문화와 평화>, 14집 1호, 22-43.
- 김창룡 (2018. 5. 26).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회 발제문, 19-30.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40-85.
- 뉴스통신진흥회 (2018). <연합뉴스 공적기능평가보고서>. 서울: 뉴스통신진흥회.

- 손영준 (2010). 뉴스 미디어로서의 연합뉴스 위상 제고 방안.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3-22.
- 심영섭 (2018). 국제적 뉴스 통신사들과의 비교를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저널리즘의 위험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30-53.
- 손달임 (2020).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 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집, 137-166.
- 송상근 (2016).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34-62.
- 이건호 · 고흥석 (2009). 취재원 활용을 통해 살펴본 한국 신문의 보도 시각 고찰. <한국언론학보>, 53권 3호, 347-369.
- 이상기 · 정준희 · 이정훈 · 박영흠 (2020). <감염증 보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이완수 (2021). 숫자의 신화에 빠진 한국 저널리즘: 형식적 객관성을 위장한 진실의 누락.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 기획, <버릴 관행, 지킬 원칙> (30-311쪽).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완수 (2021).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3호, 306-375.
- 이완수 (2010). 연합뉴스의 국내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55-74.
- 이완수 · 홍경수 · 정영희 (2022).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패턴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30.
- 이종수 (2020). 코로나19 관련 CNN 뉴스 영상분석: ‘타자’의 질병에서 ‘우리’의 질병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권 2호, 245-298.

- 이지연 · 한영애 (2021). 백신접종 이상반응 뉴스그래픽의 통계정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숫자 및 시각화 형식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6-297.
- 이혁민 (2021. 5). 위험성만 과도하게 보도한 언론, 정보 전달자로서 균형 맞출 필요: 백신 예방접종과 언론. <신문과 방송>, 통권 605호, 90-9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종섭 (2018. 10. 29). 국제적 뉴스 통신사들과의 비교를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저널리즘의 위험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 전지훈 · 장창석 (2020). <코로나19로 인한 충남 사회분야: 사회심리 및 언론 역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시리즈>. 충남연구원 [편].
- 정재훈 (2021. 6).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의 과학적 이해와 전문가, 언론의 역할. <언론중재>, 통권 159호, 4-13,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조민정 · 이신행 (2021).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자료 기반 자동화 프레임 추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권 1호, 79-121.
- 표시영 (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2호, 112-122.
- 최영재 (2016). 한국의 공영뉴스통신 정체성 연구-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역할과 책무. <언론과 법>, 15권 3호, 97-130.
- Brennen, J. S., Simon, F. M., Howard, P. N., & Nielsen, R. K. (2020). *Types, sources, and claims of COVID-19 misinformation*(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 Chen, Z., & Xu, X. (2021). COVID-19 news reporting and engaging in the

- age of social media: Comparing Xinhua News Agency and The Paper. *Global Media and China*, 6(2), 152-170.
- Choi, M., & McKeever, B. W. (2019). News framing of avian flu: Media advocacy and response to a public health crisis. *Newspaper Research Journal*, 40(4), 451-466. <https://doi.org/10.1177/0739532919855790>
- Cohn, V., & Cope, L. (2011). *News and Numbers: A Writer's Guide to Statistics*. John Wiley & Sons.
- Dearing, J. W., & Rogers, E. M. (1996). *Agenda-setting* (Vol. 6). Sage.
- Dunaway, J. (2013). Media ownership and story tone in campaign news. *American Politics Research*, 41(1), 24-53.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ume 43, Issue 4, December 1993, Pages 51-58.
- Fox, C. A. (2021). Media in a Time of Crisis: Newspaper Coverage of Covid-19 in East Asia. *Journalism Studies*, 22(13), 1853-1873.
- Gigerenzer, G. (2015). *Calculated risks: How to know when numbers deceive you*. Simon and Schuster.
- Hong, T. (2007). Information control in time of crisis: The framing of SARS in China-based newspapers and Internet sourc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5), 696-699.
- Johnstone, J., & Forde, S. (2009). 'Not wrong for long': The role and penetration of news wire agencies in the 24/7 news landscape. *Global Media Journal: Australian Edition*, 3(2), 1-15.
- Luther, C. A., & Zhou, X. (2005). Within the Boundaries of Politics: News Framing of Sa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4), 857-872. <https://doi.org/10.1177/107769900508200407>

- McCombs, M. E., Shaw, D. L., & Weaver, D. H. (Eds.).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1st ed.).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810880>
- Nisbet, MC (2008). Agenda building, Donsbach, W.(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Publication History.
- Perloff, R. M. (2022). The fifty-year legacy of agenda-setting: Storied past, complex conundrums, future possibilitie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5(4), 469-499.
- Royal, A., Mali, M. A., Kumar, V., Wagh, I. A., Bhushan, S., Mokal, A. N., ... & Bhattacharya, S. (2021). Harnessing the potential of the primary healthcare facilities in India to respond COVID-19 pandemic: A scoping evidence-based research synthesis. *Journal of Family Medicine and Primary Care*, 10(1), 116.
- Savillo, R., & Gertz, M. (2014). Ebola coverage on TV news plummeted after midterms. *Media Matters for America*.
- Soroka, S. N. (2014). *Negativity in democratic politics: Causes and consequ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kard, J. W., Handerson, L., Sillberman, J., Bliss, K., and Ghanem, S. (1991).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Boston, MA, August 7-10, 1991.
- Yang, A. (2012). Understanding the Changing Chinese Media: Through the Lens of Crises. *China Media Research*, 8(2), 63-75.
- Zhang, Y., Jin, Y., & Tang, Y. (2015). Framing depression: Cultural and organizational influences on coverage of a public health threat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in Chinese news media, 2000-2012.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1), 99-120.

<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최초 투고일: 2022년 11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2월 17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2월 26일

**Agenda structure and content
of COVID-19 Vaccination News:
Through analysis of the news content
of <Yonhap News>, the national key news agency**

Wansoo Le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Youg-Hee Chung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 Culture, Korea University)

Kyung Soo Hong

(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at format and content the national key news agency *Yonhap News* reconstructed and reported the vaccination news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a global pandemic. We conducted an analysis on how *Yonhap News* reported on the vaccination issue, which is a major national health issue, and what to cover as the main agenda. For research issues, after extracting all articles about ‘vaccination’ reported by <Yonhap News> for 4 months from the start of vaccination on February 26, 2021 to June 30, two coders were used for articles on even days for quantitatively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Articles on COVID-19 vaccination were mainly written as expository articles, with more neutral than critical ones. Although the method of presenting relevant information showed a context-oriented behavior, the proportion of

number information-centered reports that simply presented numbers in a list was also high. Reports on vaccination were mainly in the US and Europe, but reports on negative situations such as infection status were concentrated in some parts of Asia. In addition, the reliance on press releases such as dictation was higher rather than reporting directly on the spot, which we find very severe problem to solve. However, vaccine politics was written based on field coverage, and vaccine economics and health epidemiology were highly dependent on press releases. As a result of a separate analysis of the health epidemiology agenda, which wa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in *Yonhap News*, the additional vaccination policy and the vaccination trial and error agenda were reported with a negative tone, while th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and the topic of vaccination were reported with a neutral tone. Agendas for social distancing and vaccination were reported based on contextual information, but agendas on the status of COVID-19 infected and vaccinations tended to be based on numerical information. The percentage of field coverage was high on the agenda to encourage vaccination, but the percentage of press release was high on the agenda of side effects of vaccination or the status of infected people. By region, the agenda for encouraging vaccination was mainly emphasized in the United States, the agenda subject to vaccination in Europe, and the status of the infected person in Asia as the dominant reporting agenda. Based on these results, the public news agency *Yonhap News* discussed in terms of health journalism norms what format and content to reconstruct and report on the coronavirus vaccination agenda.

Key words : COVID-19, vaccination news agenda, Yonhap News,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s, health journalism